

2 0 0 8 - 2 0 0 9

P O I N T

K O R E A - J A P A N

E X C H A N G I N G

A R T I S T S

E X H I B I T I O N

2008. 8.29 - 9.21 Alternative Space Loop

Contents

서문 Foreword

- 04 김윤수 Yoonsu Kim
- 06 서진석 Jinsuk Suh

아티스트 작품 & 큐레이터 에세이 Artist work & Curator essay

- 10 문성식 Sungsic Moon
- 16 사라웃 추티웁페티 Sarawut Chutiwongpeti
- 22 안두진 Doojin Ahn
- 28 안강현 Kang-hyun Ahn
- 36 히카루 후지 Hikaru Fujii
- 40 사토시 하시모토 Satoshi Hashimoto
- 44 메구미 마쓰바라 Megumi Matsubara

- 51 작가 이력 Curriculum Vitae

인사말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창동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대안공간 루프]와 일본의 AIT[Arts Initiative Tokyo]의 큐레이터 스미토모 후미히코 [Sumitomo Fumihiko]가 공동으로 기획한 〈Point〉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AIT는 비영리 공간으로서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 [대안공간 루프]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그간 국립창작스튜디오는 입주 작가들에게 입주기간에 제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평가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Point〉전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젊은 시각미술가들이 한자리에서 작품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창동과 고양 두 곳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국내의 젊은 시각예술가들에게 서로 다른 장르에서 작업하는 작가들과의 교류를 두텁게 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작업역량을 증진시키고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내의 평론가와 큐레이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미술관계자들과의 자연스럽고 폭넓은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Point〉전은 2008년 서울전시에 이어 2009년에는 일본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창작거점이 한 지점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Point〉전이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 일본과 더 다양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구축되고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점차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날 상호간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세계미술계의 흐름에 비추어 이번 전시는 우리 미술가들에게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AIT와 [대안공간 루프]에 감사드리며 참여작가 및 그 외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Foreword

The National Art Studio in Changdong, run by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presets the Point exhibition, in collaboration with Alternative Space Loop and Sumitomo Fumihiko, curator from AIT[Arts Initiative Tokyo]. AIT is a Japanese non-profit institution providing an artist-in-residency program through its solid planning and Alternative Space Loop is an art gallery that is working towards building a new artwork and distribution platform in the domestic and Asian art markets.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Korea runs by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has so far been involved in exhibiting and evaluating works of art produced by its resident artists. However, this Point exhibition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at, for the first time, it brings together works from both Korean and Japanese artists under the same ro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operating two studios in Changdong and Goyang, has supported young domestic visual artists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for exchange with artists from other genres and has worked to enhance their artistic capabilities through interchanges with artists from other nationalities. We have also made efforts to form an international network by enabling artists to have natural, extensive meetings with art critics and curators both at home and abroad.

As part of such collaborations, we will present this exhibition in Seoul in 2008 and then in Japan in 2009. We believe that this show will become an opportunity for artists based in different areas of creation to encounter, communicate, and affect one another. We expect this show to become a benchmark for the construction of more diverse, advanced relations with Japan as well as a model for expanding exchanges to other countries. In line with the stream of the international art world that values mutual exchanges among artists, we hope this show can bring new life to Korean artists. Many thanks to the staff of AIT and Alternative Space Loop who have co-curated this exhibition. I am deeply grateful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ll those involved in this project for all their efforts.

Kim Yoon-soo

Director,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포인트 전시회(창동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 대안공간 루프 – Arts Initiative Tokyo)

현대미술시장에서 시각이미지의 창작-매개-향유의 순환 구조는 단선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각각의 기능과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창작 영역에서는 장르의 해체와 융합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성작가와 젊은 작가들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매개 공간들은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가상공간에 창작과 향유의 접점영역이 출현하고 있으며 유통 접점들 간의 사회적 위계 구조 또한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미술시장에서 대중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선은 갈수록 얽어지고 있다. 영역의 해체, 기능의 다변화와 확장은 21세기의 사회 현상의 일부이다. 디지털테크놀러지의 발달과 글로벌캐피탈리즘의 팽창은 현대인의 삶과 문화를 근본부터 재구성하고 있다. 미술산업 역시 모든 영역과 구조에서 새로운 정의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유통 소비가 압축되고 미술, 음악 영상 등 다 장르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예술과 자본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몇몇 미술관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기업화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현재, 우리는 현대 미술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확장고 공유 현상을 짚어보고 그 의미와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 포인트 전시회는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현대 미술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기능의 간섭

이번 포인트 전시회는 현대 예술에 있어서 창작과 매개, 향유의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교섭과 확장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이다. 작가들의 창작공간인 창동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매개의 공간인 대안공간 루프, 전시와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기능과 함께 예술의 담론형성에 지속적인 역할들을 해왔던 AIT의 큐레이터 스미토모 후미히코와 공동으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며 이러한 대안적 시도를 할 것이다.

지역의 간섭

이번 포인트 전시회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순회전 형식으로 이루지며 한국과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과 원주민의 다문화적 전시는 다지역의 간섭, 다민족, 다장르의 간섭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다.

담론의 간섭

이번 포인트 전시회는 참여작가 선별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시각을 가진 평론가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시도한다. 각각의 평론가들은 작가들을 선택하고 일대일 방식으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담론들을 만들어내며 각 담론 간의 간섭을 통해 또 다른 충돌을 시도한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서진석

Suh Jin-suk, Director of Alternative Space Loop

The Point Exhibition

Unlike the previous linear stream, the cyclical structure of the creation, mediation, and enjoyment of visual images has been newly recomposed in the contemporary art market, going through diverse changes in virtually every function and area. The deconstruction and fusion of genres is actively occurring in the field of creation, narrowing the gap between established and young artists. Meditative spaces are increasingly turning to public spaces, away from mere white cubes. The area shared for creation and enjoyment emerges in imaginative space. As the popularization of the art market becomes accelerated, the line between experts and non-experts becomes blurred. The deconstruction of separate spher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functions are all part of social phenomena of the 21st century. The evolve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global capitalism have drastically reshaped the life and culture of contemporary society. Thus, new definitions and analyses are required in all fields of the art industry. The line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have been condensed and multiple genres such as fine arts, music, and video have been fused together. Art is in a closer, more organic connection with capital than ever before and even a few local museums have become globalized, reaching beyond their former regional limitations. Here in the 21st century, we shed light on the expansion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n today's contemporary art, once again reminding us of its function and meaning. The Point Exhibition is to be a meaningful exhibition identifying an aspect of contemporary art that has been ceaselessly changing within the new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Interference from Each Function

The Point Exhibition is an art show attempting exchanges with and the expansion of artistic institutions taking over the functions of creation, meditation, and enjoyment in contemporary art. We make such an attempt through the joint planning of this project involving Alternative Space Loop, a meditative gallery and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Korea as a creation incubator for visual artists and the curator, Sumitomo Fumihiko from AIT, who have consistently taken the role of forming discourses 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by holding exhibitions and managing residency programs.

Interference from Each Region

The Exhibition takes the form of a traveling exhibition to be held in Korea first and then in Japan.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ho are now staying in Korea and Japan will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s. Such multi-cultural exhibitions held in Korea and Japan will show interventions from multiple regions, nations, and genres, presenting newly created images.

Interference from Each Discourse

This Exhibition attempts an organic, democratic system where art critics from various viewpoints have been involved in the selection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Each critic selects artists and creates relevant discourses through face-to-face workshops, in an attempt to generate more collisions and interactions through interference from various discourses.

Artist work & Curator essay

아티스트 작품
& 큐레이터 에세이

Sungsic Moon

문 성 식



Mountain
Water Color on Paper
80 x 300 cm
2003



문성식의 풍경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자신만의 일상 - 머무름

문성식의 초기 작업들은 주변 일상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효자동 지역의 사람들과 가족, 고향의 풍경 등 작가 주변 이야기들은 자극히 작가 개인의 시선과 감수성으로 재해석된다. 기묘한 단색의 드로잉으로 정지된 주변 모든 순간들은 그의 그림일기이다. 이미지들은 순간, 순간 현재라는 동시적 시점의 합을 기록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먼 과거 작가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추억들을 연상하는 듯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가 머물렀던 주변의 배경이 21세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다소 낙후된 지역들의 일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그가 바라보고 싶은 삶의 무대가 현재의 삶과 섞이지 않은 과거의 시간에서 머무르고 싶은 자아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편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애자 부부의 동반, 강아지의 짝짓기, 조부모님의 사진촬영 등 일상에서 스쳐지나가는 상황들이 많은 이야기의 배경을 지니고 탈시간성으로 압축된 한 장의 스틸 화면으로 나타난다. 작가에 의해 포착된 일상 순간들은 과장된 표정으로 개인화되면서 서술적이고 노스텔지아적인 향수성을 배가시킨다.

일상으로부터의 확장 - 벗어남

문성식의 <풍경>은 주변의 일상과 현재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이탈을 시도한다. 그의 작업에서 일상은 4각의 정원으로 치환된다. 매우 사실적이고 정교한 푸른 나무와 숲은 확연히 구분된 사각의 입체 정원 안에 갇힌다. 3차원 입체 내 비게이션 이미지처럼 보이는 이 풍경은 미색의 배경과 구분되면서 사각의 틀 안에 가두면 가둘수록 비례하여 입방체의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인지하게 만든다.

많은 작가들이 현실의 일상에서 벗어나 관찰자적 시선으로 자신의 영역을 되돌아보려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의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 무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도 그 무대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성식은 일상의 무대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 한다. 그는 무대 밖의 세상과 무대를 관찰하는 자신의 관계성을 동등하게 바라본다. 무대를 의미하

는 사각의 정원 풍경을 극단적 사실성으로 표현하고 바탕이 되는 미색의 여백과 대비를 과장시킬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두 공간 사이의 연계성이 증가한다. 물리적으로 비슷한 공유 접점 지역을 만들어내며 관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극한 대비 상황을 유도하며 관계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상의 안과 밖 - 관계

현시적 시점의 원근법을 무시한 여러 차원을 겹친 다층적 대비 구조의 회화작업들은 삼차원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고정 관념을 허무하게 있어 매우 쉬운 시각적 방법이다. 많은 현대 미술 작가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문성식은 흰 무의 공간 안에 3차원의 원근에 입각한 자연의 풍경을 배치시킨다. 여기서 흰 공간은 비어있는 여백의 공간이 아닌 점, 선, 면을 초월한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의 공간이다. 즉 그 공간은 무엇이든 채워질 수 있는 탈차원적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 웜홀(Warm hole)은 작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의 모든 곳과 통해 있고 다중의 우주를 연결하는 얽힘의 끈이다. 흰 여백과 그 위에 떠 있는 사각 입방체의 풍경은 종속적이거나 2개의 분리된 영역이 아닌, 외비우스의 띠처럼 공간과 시간의 얽힘을 만들어내며 균형의 의미를 배가시킨다. 극사실의 풍경이라는 무대와 그것이 놓여있는 밝은 여백은 비록 무와 유의 뚜렷한 경계가 있음에도 보다 유기적인 관계성을 증폭시킨다. 즉 미색의 여백은 정원을 돋보이기 위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한의 이미지가 담긴 상상의 공간인 것이다.

문성식은 회화작가이다. 그에게 있어 사각의 프레임은 그만의 작은 세상을 넘어선, 이상의 소우주이다. 일상과 정원의 풍경의 이미지는 작가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절개된 단편이 아닌 모든 전부를 함축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한 상상적 내러티브는 작은 점을 통해 무한의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Sungsic Moon's Landscape

Suh Jin-suk, Director of Alternative Space Loop

His Own Daily Life – Staying

Sungsic Moon's early work begins from the memories of his daily surroundings. The stories of the residents of Hyoja-dong and their families and scenes of his own home are visually reinterpreted from his extremely individual viewpoint and sensibility. Sungsic Moon's work is a picture diary that depicts his surroundings in a stillness captured through whimsical monochrome drawings. The sights he illustrates approach us as images recalling his past reminiscences, not merely chronicling moments of the present. This is not due to the fact that he depicts rather underdeveloped areas of 21st century Seoul. Ra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his own self that wishes to remain in the times of the past and separate from current life. Daily fleeting situations such as a disabled couple on an outing, the mating of puppies, and grand parents' taking photographs appear like in still photographs condensed in timelessness along with their many background stories. When individualized and exaggerated, the everyday moments the artist captures enhance a sense of narrative nostalgia.

Expansion from Daily Life – Escaping

In Landscape, Sungsic Moon makes an attempt to deviate from the stage of present everyday life. In his work, the everyday turns into a square garden. Tremendously realistic, elaborate images of green trees and forests are confined to a seemingly defined, three-dimensional garden. The scene looks like a 3-D navigation image, standing apart from its pale-yellow background, and appears gradually dis-

tanced from the world. Many artists try to look back on their domains from the viewpoint of observers as a departure from their daily lives. Strictly speaking, they still remain in the position of gazing at the world from an observer's point of view. Sungsic Moon, however, wants to stand independent from the stage of everyday life. He sets the world outside the stage of the everyday and his inner world at the same level. As he extremely realistically represents the square garden and dramatically exaggerates the contrast of the pale yellow background, ironically, the connection of the two spaces is strengthened. This connection increases not by the extension of a connecting or shared area, but by the reinforcement of this extreme contras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Everyday – Relations

Many contemporary artists often use the visual technique of overlapping or contrasting multiple layers in disregard of perspective. This method very easily breaks down our fixed notion that is confined to a three-dimensional world. Sungsic Moon arranges natural scenery in a white space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pective. The white space is not only empty, but is also an infinite space, transcending all dots, lines, or planes. It is perhaps a type of de-dimensional space that can be filled with everything.

A wormhole is a small, dark space, but leads to all other worlds that are beyond our perception and a bridge linking a multiple universe. The white blank space and three-dimensional square landscape flower over it generate an entanglement of space

and time like the Möbius strip, doubling the meaning of equilibrium. The hyper-realistic stage and its bright blank space amplify its organic relationship, despite an apparent boundary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The blank space in pale-yellow is not a mere background to make the garden look conspicuous but an imaginative space encapsulating infinite images.

For Sungsic Moon as a painter, a square canvas is a microcosm transcending his own small world. Everyday scenes and garden images comprise all surrounding his reality, not merely a slice of his daily life. He shows us infinite space through such imaginative narratives.



Heartless intersection

Acrylic on Canvas

100x100 cm

2008

Sarawut Chutiwongpeti

사라웃 추티윙페티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Three Channel Panoramic Wall Projections
12 Mins 49 Sec
Loops, Silence
2004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A nature documentary realism about young girl dream's from Lofoten Island in Norway

Single Video Installation

1 Min. 31 Sec

Loops,Sound

2004



타자들의 꿈 속으로

유진상,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추티윙페티의 <소망, 거짓 그리고 꿈들>은 2001년 가을 캐나다의 반프 예술센터에서 시작된 비디오 프로젝트로서, 1997년부터 작가가 진행해 온 <무제 (소망, 거짓 그리고 꿈들)>이라는 설치작업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개의 비디오 프로젝션으로 구성되는 이 작품의 주제는 현실과 그것의 무의식적 기억들이 비선형적 서사의 형태로 재구성되는 영역으로서의 '꿈'이다. 극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복수의 비디오 프로젝션에 의해 관객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타자의 꿈에의 몰입이 될 것이다. 깊은 숲속을 헤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의 시점과 바람소리, 어두운 하늘과 자연의 요소들 - 물, 바람, 대지와 불빛-, 계속해서 오버랩 되는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인물의 낯선 모습과 마치 그가 금방이라도 물 속에 잠길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잠든 여인의 끊임없이 꿈을 꾸는 듯한 클로즈업된 얼굴과 친숙하지만 흐릿해 보이는 인물들의 단속적인 움직임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추티윙페티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예술이 세계에 대해 개념적이고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과 세계의 상호지시는 그에게 있어 무의식의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꿈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가장 적당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형식적 상투성으로 인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추티윙페티의 작품은 사운드의 절제와 최소한의 빛 -그것은 화면 전체를 일반적인 밤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관객을 둘러싼 공간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간결한 이미지들의 조합을 통해 그러한 위험을 비켜간다. 그의 작품에서는 흡사 초자연적인 소통, 예컨대 자연과 인공, 원소들과 언어, 꿈과 현실의 접촉 내지는 교호(交互)가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흡사 사머니즘을 연상시키는 듯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시공간의 영역이 이러한 연출을 통해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티윙페티의 작업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3채널 프로젝션이 제공하는 몰입적 연출의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지각과 꿈이라는 테마를 위한 비언어적 재현 혹은 가시화를 이루기 위해 작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작품은 어두운 전체의 톤과 꿈에 대해 말하는 가리앉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아름답고 긍정적인 감상들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들, 현실의 낮고 어두운 기억과 그 한계들,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침잠과 허우적거림, 꿈을 꾸는 이의 표정과 그로부터 고집어내는 일의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꾸는 꿈들 속에서 꿈이지 않고,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그리고 매번 불러일으킨다. 추티윙페티의 작품은 그에 대한 아주 진솔한 헌사처럼 보인다.

Into the dream of others

Yoo Jin-sang, Professor of Kaywon School of Art Design

Sarawut Chutiwongpeti's *Wishes, Lies, and Dreams*, a video project held at the Banff Arts Center in Canada in the fall of 2001 is an extension of his installation project *Untitled - Wishes, Lies, and Dreams* he has done since 1997. The theme of this work is represented by three video projections. It shows a dream as a sphere where realities and unconscious memories are reconstructed as a form of nonlinear narrative. In the dramatic space created by multiple video projections, viewers experience a state of immersion into another's dream.

They feel that unknown narratives can be heard from such elements as a figure wandering deep in a forest and the sound of the wind; a murky sky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water, wind, the land, and lights; continuously overlapping scenes of a figure swimming in a swimming pool; the feeling of unrest that the figure might drown; the close-up, dreaming face of a sleeping woman; and the intermittent movements of familiar, yet vague figures.

Chutiwongpeti said his work begins from questioning the possibilities of art to express the world in conceptual and visual language. Inter-directions between art and the world seem to arise from the depth of the unconsciousness. His work, employing the forms of dreams, is considered appropriate, but may interrupt immersion due to their formal banality. Chutiwongpeti's work avoids such interruptions through the adoption of a restrained sound, minimum light (when minimum light is used, video scenes and the surrounding spaces appear like a dark, perpetual night), and the fusion of concise images. His work seems entirely overwhelmed by the interaction or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artificial-

ity, elements and language, and dream and reality. His work, reminiscent of shamanism, visualizes the sphere of space-time where the body, spirit, and soul interact.

A space for immersion offered by the three-channel video projections is required to appreciate Chutiwongpeti's work. The artist seriously considered how to present these projects as a nonverbal representation of the visualization of perceptions and dreams. Despite dream-like dusky tones and subdued sounds, the work brings about extremely exquisite, positive emotions, as indicated by the theme. It simultaneously reminds us of our wishes, hopes, dark memories and limits in reality, as well as our love for children and their dreamy looks, which often recall beauty and fear at the same time. It seems Chutiwongpeti's work can be seen as a tribute to them.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 From Crystal To The Stars...*)
Single Video Installation
5 Min.
Loops, Sound
2006



DooJin Ahn

안두진

Covert Party at Makom

Installation Shot

Dimension Variable

Mixed Media

2008



Covert Party at Makom
 Installation Shot
 Dimension Variable
 Mixed Media
 2008



오브제무한변형체계로 만든 또 다른 세상

김미진, 예술의 전당 전시예술감독, 홍익대미술대학원교수

안두진은 화려한 인조물감색과 장난감으로 공간을 구성하며 설치작업을 한다. 수많은 오브제와 함께 회화도 하나의 요소로서 설치되며 작가만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안두진은 이세계의 단위를 자신만의 최소단위 '이미쿼크'라 명명하였다. 이마는 Imagine의 Ima이며 물질의 최소단위 쿼크Quark를 합성시켜 작가만의 세상을 만드는 기본단위가 된다. 안두진의 이마쿼크라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3가지 오브제로 표현되는데 발견되어진 것, 발견된 것에 작가의 의도로 합성된 것, 순전히 작가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가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오브제는 길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 반짝거리는 작은 장난감 부스럭기나 일상 물건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다. 그리고 그 오브제는 작가에 의해 스텝(플라스틱의 재료)로 팔이나 다리 등 인체의 부분 혹은 다른 생물체의 부분으로 합성되어 또 하나의 단위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스티로폼의 종류이면서 고급재질인 골드폼으로 사각, 원 등의 작은 형태를 조각하고 모델링해 화려한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하고 바니쉬를 발라 도예적 마티에르를 얻어내어 창조라는 오브제단위를 만든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을 열거하는 것이 안두진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두진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 그 이후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인간의 세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오브제, 문명들의 세계 등 세상의 비밀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 탐구하며 표현한다.

신, 인간, 오브제, 자연 하나하나도 너무나 거대하고 방만한 주체며 수많은 사람들의 탐구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 사이의 혼성된 수많은 관계들도 함께 존재 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세계까지 합쳐져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계시대의 도림과 함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상세계까지 합쳐 더욱 무궁무진한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안두진은 문명(발견된 오브제), 문명과 문명의 파생 문명과 자연의 파생(변형된 오브제) 그리고 자연(작가가 만든 창조오브제)이라는 최소단위로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한다. 안두진의 접근은 스토리텔링에 의해 캔버스와 장소라는 공간이 결정되며 그곳에 경험된 인간의 역사

와 작가의 상상세계가 합쳐져 재구성되어진다. 그곳은 시대에 따른 어떤 양식이나 작가의 지적(교육), 심리적(상상, 꿈) 경험대로 이미지쿼크를 사용해 조합하였다. 그곳은 역사 속에서 경험된 신비와 송고를 비롯한 저급의 요소까지 유머와 위트를 내 뽐으며 안두진만의 전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고딕형태, 스테인글라스, 사찰의 오방색으로 꾸며진 단층, 만다라 등 종교적 건축과 질서정연한 군대, 전쟁으로 시대를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마치 남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며 놀이를 해왔고 커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게임을 하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곳에는 선과 악, 고급과 저급, 창조와 파괴, 천사와 악마, 환상과 악몽 등이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환타지를 제공한다. 안두진은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곳의 존재물들을 합성수지로 합성한 이미지들의 무한변형체제로 피조물들을 생산하며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스토리텔링의 작위적 세계는 작가역량에 따른 각본과 기획에 의해 영화나 소설처럼 보이는 세계다. 작가 경험된 세계의 광폭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는 환타지의 질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안두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체제를 습득해 왔기 때문에 그가 보는 특별한 시각으로 거대주체가 아닌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 예술로서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형태의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nother World Produced by an Infinitely Changing System of Objects

Kim Mi-jin, Artistic Director of Seoul Arts Center &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Ahn Doo-jin's installations consist of paintings with showy colors and various playthings. Ahn sets a painting along with a number of objects as elements to create his own world. Ahn calls the basic unit of his world an 'Imaquark,' a compound word of 'imagine' and 'quark.' Ahn's 'Imaquark' is represented by three kinds of objects: discovered objects; objects containing various intentions; and objects made only with his own intention.

The objects discovered by the artist include small playthings and parts from everyday items picked up on the street. These objects are combined into arms, legs, and other parts made of Sculpey clays. After modeling rectangles, circles, and geometric forms with Goldfoam, a kind of high-performance Styrofoam, the artist uses a ceramic-like matiere by applying luxurious acrylic paints and varnish. A depiction of the process of Ahn's work is helpful to understand his work. Ahn explores and represents the secre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process of how God created the world, humans governing the world, made-made objects, and the world of civilization in his own language.

God, man, nature, and their innumerable relationships are enormous subjects that have been explored by a great number of artists. Ahn creates his own world using the basic units of found objects (civilization), modified objects (another civilization derived from civilization and nature), and created objects (nature). In Ahn's work, the space is set by storytelling and here, he shows his imagination and the history he has undergone. Based on his intellectual (education) and psychological (imagination and dream) experiences or perhaps according to styles

of the times, Ahn combines 'Imaquarks' to express a sense of space. The space evokes a mystic, sublime atmosphere with a humorous, witty undertone, generating Ahn's own unique tales and legends.

A Gothic style, stained glass, religious architectures such as a temple in Obang-saek (Obang stands for five directions that constitute the bases of ancestors' understanding of all things under the sun; 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and mandala, orderly troops, and wars suggest a scene in history. Ahn's work is like a depiction of a game as a child or an Internet game. That game, in which good and evil, highbrow and lowbrow culture, creation and destruction, angel and devil, illusion and nightmare co-exist, provides a new fantasy. As if God created the world, Ahn extends his territory, producing creatures in an infinitely changing system of modifying images by using synthetic resin. An artificial world he created looks like a film or novel scene, based on his own play and plan.

The artist is unable to produce a quality fantasy due to his lack of experience. However, Ahn is expected to produce infinitely new work by using the language of everyday life, as he has learned how to express all in this world in his own language.

Do remember!
270x230cm
acrylic on canvas
2007



Kang-hyun Ahn

안강현



Joubert's Formula

sketch

20x30cm / each

ink, photography, transparency film paper

single channel video

2008

The world of order and disorder: In Motion
 Presented by woman who wears Llama Mask
 3-channel video
 sketch board
 digital image
 2008



라마 가면을 쓴 여인이 소개하는 질서와 무질서의 세계

강승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이 지루한 세상에 대항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라고 했다.
 - Orhan Pamuk의 『하얀 성』에서

안강현의 작업은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작가의 관심은 현실 이면의 '추상적' 혹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것들 - 그것이 무형의 이념이든 유형의 대상이든 -이며, 그 결과로서 작업이 보여주는 세계는 현실 너머의 영역이다. 이 세계는 무한히 펼쳐져있어 예측이 불가능하며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매혹적이다.

필자가 최근에 본 안강현의 일련의 작업들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미완성이다. 불꽃놀이 중인 밤하늘, 표지판이 보이는 담벼락, 들판과 하늘이 보이는 풍경, 하늘을 배경으로 한 기린 머리, 의자가 있는 기차 내부 등의 무대영상(댄스 퍼포먼스 "Eye"를 위한 것이다), 잡지에서 여러 형태의 나무 실루엣들을 오려내어 붙인 콜라주, 겨울 시카고의 어느 주차장에 쏟아놓은 눈 사진, 기하학적 형태의 오브제들이 놓여진 공간에 라마(낙타) 가면을 쓰고 자신이 만든 드레스를 입고 있는 퍼포먼스(작가는 "라마 가면을 쓴 여인이 소개하는 질서와 무질서의 세계"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찍혀지거나 발췌된 현실의 단편들과 작가가 창조해낸 옹도불명의 오브제들이 뒤섞인 이 이미지의 파편들에 어떤 컨텍스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까. 안강현의 작품에 대해 상세한 의미 부여나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작품의 메타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오브제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안강현의 작업 형식은 다양하다. 그녀는 콜라주의 방식을 즐겨 사용하며 이것은 초(超)현실(ultra-reality)의 세계에 접근하는 데 유용하다. 역시 미완성의 한 비디오는 작가가 현재 '거주'하며 '작업'하는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공간을 찍은 것으로, 영상 콜라주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무질서하게 놓여

진 잡다한 일상용품, 자연스레 구겨진 침대보, 사진과 드로잉들이 촘촘히 붙여있는 벽, 서로 역방향으로 비좁게 누워있는 인형들, 형광등 부분이 보이는 천정, 바닥의 운동화 한 짝, 책상 위 로션, 널려진 오브제 작품들과 재료를, 모니터 주변의 락 앤 락 반찬통과 책과 컵, 모니터에서 돌아가는 찰리 채플린이 모자에서 새를 날려 보내는 마술을 하는 영상, 펼쳐놓은 여러 개의 영수증들.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 대상의 장면들이 이어지는 사이사이에 빛과 그림자의 교차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장면들(화질이 좋지 않아 스튜디오의 어느 부분인지는 불명확하다)이 삽입된다.

지금까지 안강현의 작업에서 '몸'은 종종 자신이 속한 공간과 사람들 즉, 주변과의 '관계 맺기'의 매개가 되어 왔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동네사람들에게 책을 기부받아 만든 종이로 된 전통의상을 입고 한 퍼포먼스(2006)나 독일 드레스덴에서 주민들에게 빈 엽서를 보내 비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하고 그것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한 작업(2007)은 그러한 예이다. 최근 제작 중인 주차장 구석에 쌓여진 눈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라마 가면을 쓴 퍼포먼스에서 작가 자신의 몸은 실제와 비실체라는 두 세계의 경계와 마주한다. 작업실의 구석구석을 돌며 흩어진 일상의 파편들을 찍은 비디오에서도 이러한 '몸의 흔적'들이 잔존함은 흥미롭다. 침대 위에 무심코 놓여진 핸드폰과 책상 위 사용하고 둔 컵의 정지된 - '시간성이 존재하지 않는' - 대상들의 화면들. 벽에 걸어놓은 라마 가면 퍼포먼스에서 사용한 의상 바로 위 미확인 물체의 미세한 흔들림과 찰리 채플린의 마술에 나오는 날아가는 비둘기의 퍼덕거림이 있는 - '시간성이 존재하는' - 화면들. 이것들의 결합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즉, 현재를 초월한 '몸의 존재감'을 일깨운다. 이로서 우리는 신체 깊숙이 각인된 오감과 기억을 쫓아가 이르게 되는 어떤 세계에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The world of order and disorder: In Motion Presented by woman who wears Llama Mask

Kang Seung-wan, Curator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We have to look for the marvelous and the anomalies as found in my story. That's right. This is the only thing we can do to face this tedious world.

- Orhan Pamuk, *The White Cas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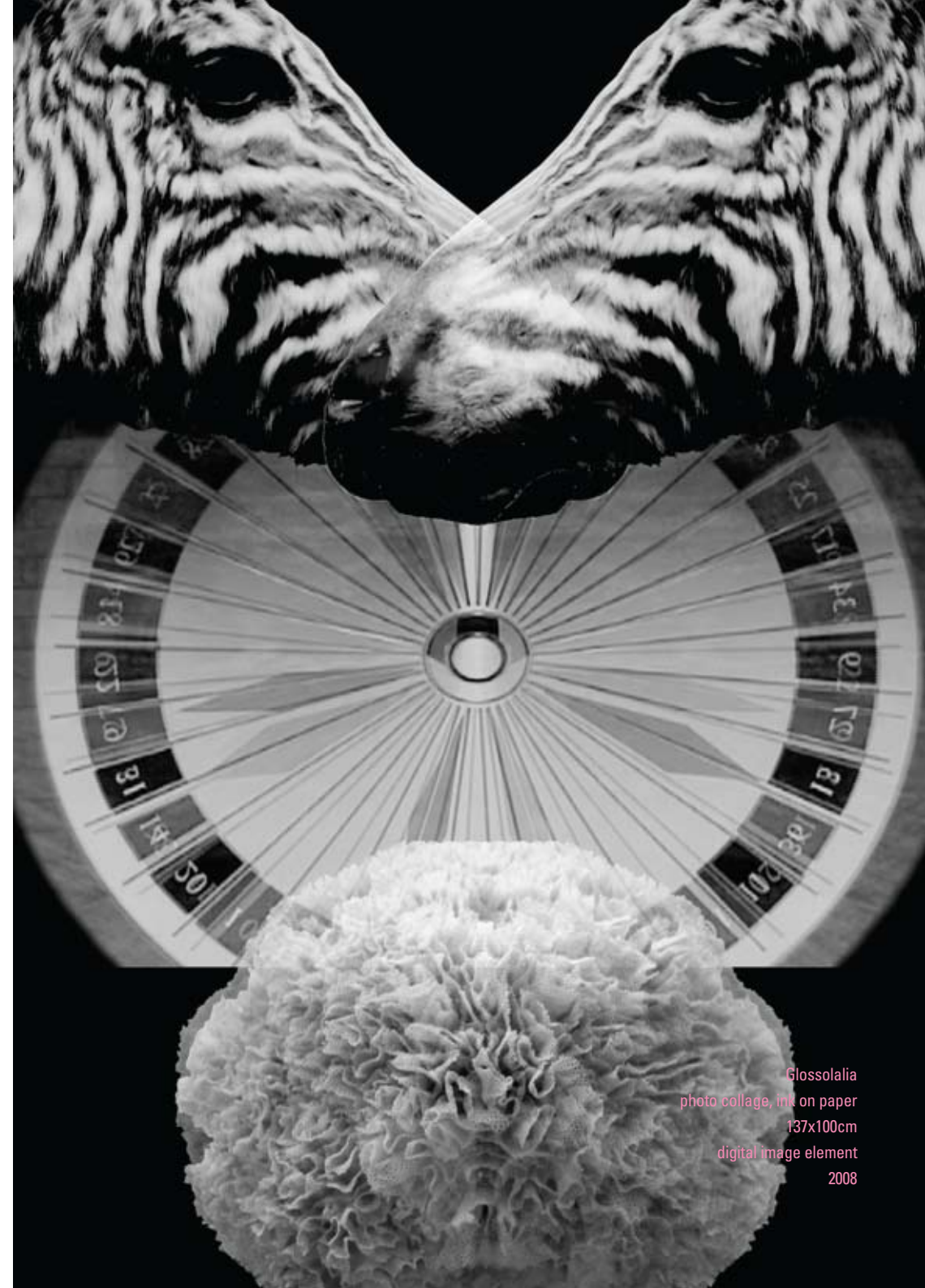
Ahn Gang-hyun's work begins from reality. What Ahn shows, whether abstract or concrete and whether an intangible idea or a tangible object, is in a sphere beyond reality. This world is quite seductive in that it spreads infinitely and is quite unpredictable. The series of Ahn's work that I saw recently is ongoing and yet uncompleted. A night sky embroidered with fireworks; a wall with a signboard; a landscape with the sky and a field; the head of a giraffe set against the sky; a video showing the interior of a train with seats (This is for a dance performance *The Eye.*); a collage made up of tree images cut from magazines; a picture capturing snow in a parking lot in Chicago; and a performance scene in which the artist wears a hand-made dress and a llama mask in a setting of geometric objects (Dubbed by the artist herself as *The World of Order and Disorder Presented by Llama*) --- is it necessary to look for context for these fragmented images and pieces of reality taken from different times and spaces? Ahn's work is perhaps more abundant in metaphor without presenting any detailed meanings or any specific interpretations.

Ahn works in a wide variety of media from installation and video to performance. Frequently employing the collage technique, she approaches a world of ultra-reality. An unfinished video is made up of collages of video scenes from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where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Abstract scenes created by the intersection of light and shadow are inserted into concrete spaces and scenes such as disorderly scattered daily items; a naturally crumpled bedcover; a wall hung densely

with photographs and drawings; dolls lying together in opposite directions; a fluorescent lamp on the ceiling; a pair of sports shoes on the floor; lotion on a desk; scattered objects and materials; a Lock & Lock airtight food container; a book and cup near a monitor; a video scene of Charlie Chaplin's magic show where he takes out a bird out of his cap; and a spread of several receipts.

The body in Ahn's work has often been a medium to establish a connection with her neighboring spaces and people. Examples of this include the performance (2006) she did wearing a traditional costume made of the paper from books donated by villagers in Dublin, Ireland and a video (2007) featuring postcards that were sent to residents of Dresden, Germany asking them to depict the rain.

In her recent performance, Ahn wore a llama mask in a snowy setting in the corner of a parking lot, where her body become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the unreal. Traces of her body also interestingly appear in the video as the daily fragments captured in each and every corner of her studio. A sense of the existence of the body is reawakened by a combination of timeless images, such as a cellular phone casually placed on the bed or a cup on a table and objects with a temporal quality like a costume used for the llama performance hanging on a wall, a delicately trembling object, and a dove flapping its wings in Charlie Chaplin's magic show. Through these objects, we are able to approach a certain world, exploring our memories and the five senses kept deeply within our bodies.



Glossolalia
photo collage, ink on paper
137x100cm
digital image element
2008

근접하는 세계

스미토모 후미히코, AIT 큐레이터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과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을 통해 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정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있다.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와 자본은 부자도 권력자도 아닌 일반인을 전지전능한 기억의 소유자로 만들어준다. 이는 무언가 두렵기도 한 것인데 기술발전이 가져다 준 혜택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이번 전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상을 긍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연파괴나 석유자원의 고갈과 같은 문제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인간중심의 기술과 산업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향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가 반드시 퇴행적인 것은 아니다. 정보의 왕래가 증대됨에 따라 기회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특권을 지닌 일부 사람들만이 독점했던 이익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게 되었다.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신경을 쓰는 것이나, 변화를 긍정하는 태도는 앞서 언급한 장기적 과제를 극복하는 노력에 중요한 것이라는 지적과 모순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개 비판하면서 긍정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초월적이며 본질적인 명제를 통해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인적 감각에 신뢰를 부여하고 이들 통해 종종적인 생각이나 감각을 되살리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표상(representation)의 공간에서 우리는 통일성 없는 개인의 외면과 내면에 전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사회를 구성한다. 우리는 남성, 일본인, 동성애자, 큐레이터라는 표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본다. 결국 개인이 안고 있는 미묘한 위화감은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의해서 억압된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제한적인 측면을 절대시 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치는 이러한 표상의 힘에 의해 실천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있어서 마케팅과 브랜딩에도 관여한다. 한편 문화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외부에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표상의 체계를 이용한다. 특히 다문화주의가 표방되던 1990년 이후 미술계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정치화, 혹은 산업화가 자각되지 못한 채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국가간의 문화교류라는 점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똑같은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문화교류’라는 틀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류는 좋은 것이다. 이를 유발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화교류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하며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A Closer World

Sumitomo Fumihiko, Curator of AIT

These days, it is easy to feel the amount of information we are able to access rapidly increasing due to enhanced telecommunication via the Internet and transportation via airplane. The rapidly changing media makes the general public, who are for the most part not wealthy or powerful men, into the all-encompassing possessor of memories, which can be perceived as dreadful in many ways. However, without using the benefits of such technical development, an exhibition like this could not be achieved.

As we enjoy the benefits of human-centered technology and industry, looking at long-term issues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depletion of oil resources confirms the existence of this phenomenon. Such social change, however, is not always degenerative. A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creases, unequal opportunity has been removed and benefits formerly monopolized by a privileged few are now able to be shared by the general public. A positive attitude towards change is in line with efforts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long-term problems.

It is sometimes easier for us to criticize something than to affirm it. When facing things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we often rely on our personal senses to refresh our layers of thoughts and senses, rather than making judgments of right and wrong on the basis of transcendental, essential propositions. In the realm of representation, however, society is formed by offering wholeness to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sides of an individual. Therefore, we see the world from the viewpoints of men, Japanese, gays, and curators alike. Thus, a sense of the incongruity of each individual is oppressed. If viewing the world from this stance, we can see that its limitations are absolute.

Politics can also be practiced using the force of representation, which is also involved in marketing and branding in economic terms. Meanwhile, culture uses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to explore and reveal its own identity. Since the 1990s when multi-culturalism started being advocated in the art world, the political, industrial tendency of culture has remained pervasive. Cultural exchanges between different nations have been generally seen in a positive light and much money is spent on such activities. However, we should not be too excessively bound to the framework of cultural exchange. We should make sure to critically consider which points we should focus on in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the specific factors suppressing it. —

Hikaru Fuji

히카루 후지이



NIKEPOLITICS

Police uniforms, Monitor-PC

2008

후지이 히카루는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텔레비전 영상의 코드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단순하고 강렬한 스포츠 브랜드의 상업광고 영상은 이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의 작품은 고도의 신체능력을 보유한 운동선수의 동작이나 기교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실제 경기장면처럼 연출한다. 이 작품에서 격투기 선수들은 뒤엉켜 있는 듯 보이며 이는 화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서로 상대방의 몸을 짓누르고 스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 두 사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은 방패를 들고있는 전경처럼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일반인처럼 보인다. 데모나 집회장면에서처럼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어 포착되어 있다. 역동적인 육체는 서로 대결하는 듯 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상업영상처럼 스포츠의 약동하는 느낌과는 다른 힘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멋진 이미지를 균질적으로 침투시키려는 산업미디어의 의도와는 달리, 거대 스포츠브랜드의 제삼세계에서의 노동력 착취, 스포츠와 국가권력의 결탁 등 정치성 짙은 영상을 섬광같이 보여준다.

Hikaru Fujii presents works of art using scenes from TV that are quite familiar to us. The simple, intense commercial images of sports brands have played a vital part in their success in the world market. His work exposes the actions and techniques of a sports player who has the highest level of physical capability and presents them like scenes from real games. In this work, martial artists seem to be entangled with one another, lending a tense atmosphere to the canvas. They press down each other making rustling sounds. Upon closer examination, however, one figure appears like a riot police officer holding a shield while the other is just a defenseless, ordinary person. As found in many rallies and demonstrations, the work captures citizens talking with each other and being oppressed by higher power. Their dynamic bodies are shown confronting each other and evoke a feeling quite different from the dynamism of above-mentioned commercial images. Unlike the intention of industrial media to infiltrate such exquisite images into video scenes, this work has more of a political underpinning bringing up issues such as sports brands' exploitation of labor in the third world and the conspiracy between sports and state power.



Satoshi Hashimoto

사토시 하시모토



EAT The EAst
19th century woodblock print
video
March 23, May 7, 2008



사토시 하시모토는 이번 전시에 선보이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의 수단들에 의존해 관객들에게 능동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듯한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러한 수단들은 구체적으로 작품과 연관을 맺기보다는 사소한 행위를 통해 관람객의 일상성에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는 듯 보인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나 행위의 배경이 갖는 의미를 묻기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저 주시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일회적이고 비재현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등장하며 이들 통해 감상자를 긴장과 이완, 수동과 능동 사이에 위치시킨다. 이는 무언가 의미를 찾아서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탐구하고 공간을 창조한다. 일찍이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의 교차점이 현대미술의 전환점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워드 아콘이나 도리사 브라운의 작품에서부터 신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나왔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Satoshi Hashimoto has produced new work for this exhibition. He has so far worked in performance, video, and installation, urging viewers to actively engage in his work. Thus, the work seems to permeate into the viewer's daily life rather than being something only directly associated with his pieces. His work simply stares at occurring phenomena, instead of questioning the meanings of images and actions. In this sense, his work is both a one-time experience as well as non-representational. Bilaterally conflicting elements simultaneously appear in his work, thereby locating viewers somewhere in between tension and relaxation, activeness and passiveness. His work explores the meaning of what he hopes to perceive.

FULCRUM

wooden board, and other works

show site, New York

March 25 - 28, 2008 (4 days, 6 hours a day)



Re

books, wood, two chains, cups, tea bags, water, kettle, stov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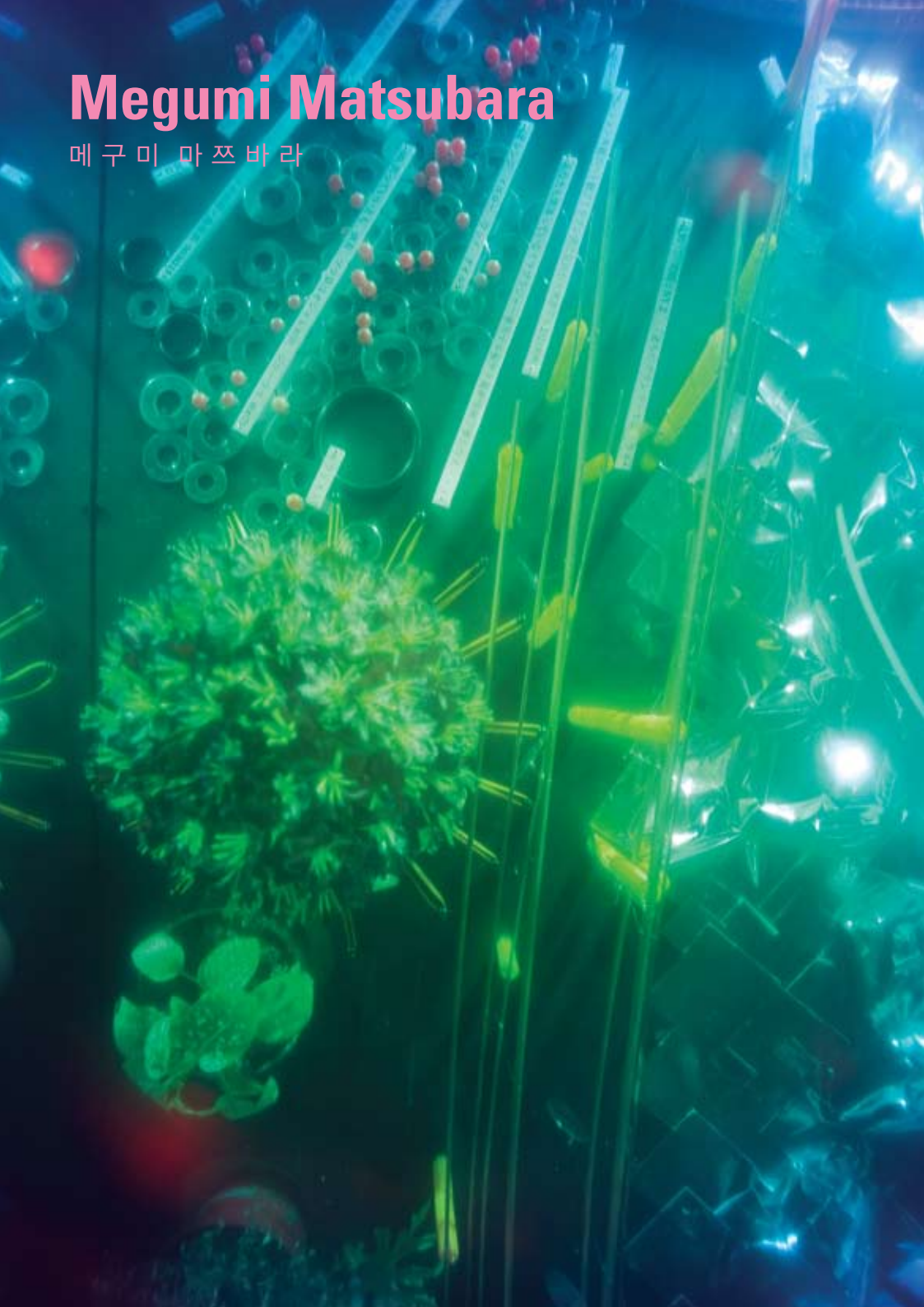
GALLERY OBJECTIVE CORRELATIVE, Tokyo

March 30 - April 2, 2005 (4 days, 6 hours a day)



Megumi Matsubara

메구미 마쯔바라



ABSENT CITY
gallery within assistant
Tokyo
photo:Sebastian Mayer
2008

메구미 마츠바라는 건축가로 활동하며 건축가에게 주어진 통상의 업무인 건축물을 설계, 시공,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확장한 개념을 작품에 적용해왔다. 최근 마츠바라는 작업실 조수, 사진가, 음악가, 심지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부재의 도시”(Absent City)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설치미술의 형태로 인물사진을 이용해 도쿄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소비되는 말들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학적 점심”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침잠하는 도시의 여러 다양한 이미지를 식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표현한다. 여기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행위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형식으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있다.

이외에도 음악이나 인채물 등이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결과 도시의 이미지를 이용해 완성된 모형은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나 자기장 내에서 자유롭게 부유한다. 그녀의 작품은 일상사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브리콜라주와 같이 환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콘스탄트(Constant Nieuwenhugs)의 “신바빌론”(New Babylon)을 연상시킴지도 모른다.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과정을 중시하며 참여하는 개인의 소리나 초상화라는 요소의 두드러진 개별성, 개인 간의 차이로부터 도시의 형태를 완성하고자 한 시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프로젝트는 법이나 감시에 의해 관리되는 도시의 표정에서 무언가 개성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Megumi Matsubara, active as an architect, has applied architectural concepts to her work, moving beyond the common business of architects such as design, construction, and the management of architectural structures. Recently, Matsubara has launched the Absent City project with the help of her studio assistant, photographers, musicians, and even her acquaintances. By using portrait photographs, and consumed words, this project represents the background scenes from Tokyo in the form of an installation. In Sociological Lunch, she expresses a wide variety of images through dialogues exchanged over lunch. The act of taking part in the conversation itself becomes part of the project and an important mode.

Her work also consists of music and maquette, evoking a fantastic feeling like a bricolage made of everyday objects. It may also remind us of Constant Nieuwenhugs' New Babylon. In this project, emphasizing the work process, what do these attempts to bring about the form of a city by employing the individuality of each sound and portrait mean? This project can be said to be an attempt to discover individuality from urban scenes that are controlled by laws and surveillance.

ABSENT CITY

gallery within assistant

Tokyo

photo:Sebastian Mayer

2008



Tremors were Forever: Remember Le Corbusier

Exhibition "Le Corbusier"

Mori Art Museum

Tokyo

photo:Sebastian Mayer

2007



세 작가들은 영상, 신체성, 건축 등 각각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재료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다. 예술은 개인 사이의 분열과 모순을 통합하는 수단일 수 있다. 이는 결코 정신병과 같은 개인의 고통스런 경험의 토로가 아니며 한 개인이 사회적 입장과 역할로부터 복잡하게 얽힌 현실에 자유롭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단은 아닐까?

The above three artists work with different materials in the different fields of video, physicality, and architecture. Art can be a measure to overcome disruption and contradiction among individuals. That is in no way the revelation of an individual's torturous experience but a means to flexibly, freely face an individual's realities entangled with his social stance and role.

Curriculum Vitae

작가 이력

Sungsic Moon

Education

- 2008 M.F.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 2005 B.F.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Solo Exhibition

- 2006 Windless landscape, kimiart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

- 2008 Dazed & Painted, Seomi & Tuus gallery, Seoul, Korea
- 2008 Everyday is not the same, Bizart, Shanghai, China
- 2007 Service Station, walsh gallery, Chicago, USA
- 2007 On painting, kukje gallery, Seoul, Korea
- 2006 Drawn to drawing, SOMA museum, Seoul, Korea
- 2006 Phenomenological perception, 175 gallery, Seoul, Korea
- 2006 Tuning, 175 gallery, Seoul, Korea
- 2005 Magazine, 175 gallery, Seoul, Korea
- 2005 Secret beyond the door, 51th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Venice, Italy
- 2005 Plant life, alternative space vinil house AA, Goyang, Korea
- 2004 Happy, kimiart gallery, Seoul, Korea

Residency

- 2007-2008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6th Long-term Artist, Seoul, Korea

www.moonsungsic.com

Sarawut Chutiwongpeti

Education

- 2003 Guest Researcher, Central European University, CEU Summer University,
- 2001 Guest Student, Department of Interactive Media, Design skolen Kolding, Kolding, Denmark
- 1992-1996 B.F.A.(Visual Art/Photography) University Studies Educatio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Exhibition & Residency

- 2008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KUNST IN DER CARLSHUTTE gGmb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Nord Art 2008, Budelsdorf, DE
The series of “Untitled 2008” (Love, Life and Death), ONE Menerung, Bangsar, Kuala Lumpur, Malaysia
Warehouse of Wonder,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Alternative Space LOOP, Korea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Changwon Asian Art Festival ,Songnam Art Hall, Korea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PROJECT STANDING BY 000. season4, XI Gallery, Korea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KIAF2008 ,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2008, Korea
The Installation series of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Changdong International Artists Studio Program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BN AMRO-Malihom, Penang, Malaysia
2007 Collaboration Art Network In-Between, Fukuoka, Japan
Gyeonggido Museum of Art/Danwon Art Museum, Ansan City, Gyeonggi- Do, Korea
Rimbun Dahan, Selangor, Malaysia
2006 Saksala ArtRadius Oy, Haukivuori, Finland
Locative Media: Rautatieasema returns - Workshop Global Groove, curated by Chris Molinski, The Art Gallery of Knoxville, supported by The Art Gallery of Knoxville, Tennessee, U.S.A. : Video Art Project, A View-Thought “The Red Window
2005 Landscapes of the Mind, curated by Marjorie Kaye, Caladan Gallery, Beverly, Massachusetts, U.S.A
Untitled (Wishes, Lies and Dreams II) and series of “Untitled”, curated by Yow Siew Kah, The Art Galler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Visual & Performing Arts , Singapore

Awards & Honors

- 2008 Grant, supported by Abn Amro Bank
- 2007 Tallinna Kunstihoone Fond SA : Grant, supported by The Japan Foundation and Yokotopia Foundation : Grant, supported by The Prince Claus Fund : Grant, supported by Rimbun Dahan
- 2006 Fellowship, Jane Geuting Camp Fellow, The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Fellowships, Ragdale Foundation : Grant, supported by Zeitraume : Discover Berlin, Agenda-Agentur Berlin, Berlin, Germany: Award Certification and AAW Medallion, Atelier of Alexandria (Assembly of Artists and Writers),

- Alexandria, Egypt : Grant, supported by The Sleipnir : Grant, supported by The Sleipnir

Doojin Ahn

Education

- 2002 Bachelor of Arts (BA) in Fine Arts of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2006 MFA of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 2008 Covert party at makcom, Project space Sarubia, Seoul
- 2006 Saint Brain Temple, Brain factory
- 2005 Fantastic Hot Story, Kyonggi Cultural Foundation

Group Exhibition

- 2008 Privacy, Altertive Space LOOP, Seoul
- 2007 Stress Fighter, Altertive Space Pool, Seoul
Hi Pop, Yemac gallery, Seoul
Nice to meet you, Lewism Art House, London
Art Forecast, Artistic Report on First-term Artists at Nanji Art studio, Seoul Museum of Art, Seoul
The Surplus Time, The gallery, Seoul
- 2006 Drawn To Drawing, Soma museum, Seoul
A Better Tomorrow, D club Party lounge, Seoul
Organic Form, Chosun Art Gallery, Seoul
Door To Door 4, Alternative-space pool, Seoul
Wish List, In-sa art center, Seoul
- 2005 Cutting Edge, Seoul Aution
JoongAng Fine Arts Competition, HanGarm Art Museum of Seoul Art Center, Seoul
Pop-i-Con, Kimi Art Gallery, Seoul
Art Toon. Toon Art, Ga-il Museum, Seoul
- 2004 Talking To The Wall, Arko Art Center, Seoul
Sempio Space Open Exhibition “Attack the Soy Factory”, Sempio Space, Ichon, Korea
Gulliver’s Travels, Seonggok Museum, Seoul
Art and Playing , hangarm Art Museum of Seoul Art Center, Seoul
- 2003 The Debates Of Artists - Now & Here Image, Gallery HanJeon, Seoul
The Exhibition Of Psycho Drama, Seonggok Museum, Seoul
Pleasure Factory, Kyunghee palace Annex, Seoul

- 2002 G.P.S.- Where is Where, Modern Art Museum of Hongik University, Seoul
Chamsil Reconstruction Project:
Good Villge to live in, Songjeon Elementary School in Chamsil, Seoul
Suksu-Nicely Placed in Anyang, Stone&Water Gallery, Anyang
- 2001 Korea-China-Japan Students Exchange, Osaka, Japan

Award and Residency

- 2007-2008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6th Long-term Artist, Seoul, Korea
- 2006 Nanji Art creation Studio by Seoul Museum of Art
- 2006 Selcted for support, Kyonggi Cultural Foundation
- 2005 Selcted for support, Kyonggi Cultural Foundation
- 2005 Selected as New Artists, JoongAng FINE Art Competition

Kang-hyun Ahn

Education

- 2004 MFA Sculpture,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 2001 BFA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hibitions / Performances

- 2008 STORY,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Seoul [cat]
Art in Bloom 2008: Gulliver goes to the Museum, Seoul Museum of Art, Seoul [cat]
Jan-ken-pon: Rock, Paper, Scissors, Sussex Barn Gallery, Chichester
- 2007 EYE, dance performance, Aramnuri Theatre, Goyang
When Euclid Walked, Seoul Museum of Art, Seoul [cat]
FAKE FAKE FAKE, two-men-exhibition with Yeon-jin Kim, Doppel de, Dresden (+perf.)
I LOVE EARTH, Galleria department store west eventhall, Seoul
The Show, Mixed Media and Video Camera, solo exhibition, Alternative Space Miccle, Seoul
- 2006 Punch Drunk Works, Alternative Space Miccle, Seoul
Young Korean Artists, Gwach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Seoul [cat]
Kinetic Cabaret, two-men-exhibition with Kaoru Tsunoda,

Sussex Barn Gallery, Chichester
 Exposed: Black Box and Crystal Ball, media exhibition venue, LG i-gallery, Harrot Department Store, London [cat]
 People Call Me Madame Owl, solo exhibition, Gallery Factory, Seoul [cat]
 Forestory, dance/theatre performance, The Place, London
 2005 Wunderkammer, City and County Museum, Lincoln [cat]
 2004 Playground of Camouflage, Art at Kingly Court, London
 The Love Room, Hen & Chicken Theatre, London (Perf. in Absurd Play)
 The International Exchange Show, Hunter College/ Time Square Gallery, New York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2004, Liverpool Biennial, Liverpool & Barbican Art Gallery, London [cat]
 Re-animation of an abandoned place, Wilmesruh, Berlin
 Your head is a diamond, Slade Gallery, London (Perf.)
 2003 Tune-in Drop-out in Gstaad, Galerie Wandelbar, Gstaad
 We are all Flowers, Woburn Square Garden, London (Perf.)
 I am sorry, Bookable space,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Perf.)
 2002 Home Sweet Home,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Perf.)
 Re, Kwanhun Gallery, Seoul

Relative Working Experiences

2007 Dance Performance <EYE>, working with artists from diverse background
 2006 Working with a youth group at St. Andrew’s Community Centre, Fatima, Dublin
 2005-2006 Member of dance/theatre group ?%LIQUID in London
 2005-2006 Artist Assistant - Madhumita Bose: Elixir Arts, Queen Elisabeth Hospital’s School Arts Programme
 2003-2006 Performance Workshop run by Gary Stevens, Toynbee Studio & Bloomberg Space, London

Artist-in-residence Programme

2007-2008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6th Long-term Artist, Seoul, Korea
 2007 Doppel de, Dresden, Germany 2006 Studio 468, Rialto Community Centre, Dublin, Republic of Ireland
 2005 West Dean College, Chichester, West Sussex, UK
 2003 Galerie Wandelbar, Gstaad, Switzerland

Megumi Matsubara

Education

2003-2004 Master of Architecture,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London, United Kingdom
 2001-2003 Master of Arts,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Studies,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1999 Internship of curatorial program at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Bridgestone Museum Tokyo, Japan
 1997-2001 Bachelor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Exhibition

2008 ABSENT CITY, Installation, Gallery within assistant, Tokyo, Japan
 Translucent Passage, Mellow Fever, Group exhibition, Galerie des Galeries, Galeries Lafayette, curated by Simon Castets, Paris, France
 ABSENT CAFE, Marunouchi Artweeks Commission, Tokyo, Japan
 Post Coitum, Group exhibition, MHT Gallery, Tokyo, Japan
 2007 Probarious, Diesel Denim Gallery, curated by Yosuke Kurita, Tokyo, Japan
 Woven Marionette, Tide Think, Group exhibition, National Stadium, DesignTide in Tokyo, curated by gift_lab, Tokyo, Japan
 Feminine Ties for Giraffe, Gallery Mitate, Tokyo, Japan
 Tremors were Forever : Remember Le Corbusier, Workshop & Installation, Mori Art Museum, Tokyo, Japan
 Opiate, Music performance, Vallery, Barcelona, Spain
 me, too., Shinjuku Art Infinity, Tokyo, Japan
 Rock Garden for Vujj, Salone del Mobile, Aria Savona, Milano, Italy
 Patterns of Alliance, Installation & Workshop, Lab*Motion, Tokyo Wonder Site Hongo, curated by Hisako Hara & Chiaki Sakaguchi, Tokyo, Japan
 Green Winter, Music live performance, Studio K, Tokyo, Japan
 2006 Totoro House for Vujj, London Design Week, Covent Garden Film Studios, London, United Kingdom
 Slow/Motion: Fieldworkshop, Workshop & Installation,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Yamaguchi, Japan
 2005 Tremors were Forever, Installation, Caniche Courage, Tokyo, Japan
 2003-2004 Happy City, Canon Digital Creators’ Contest Winning Work Exhibition, Tokyo (Japan), New York, Maryland (United States)
 2003 Cards and T-shirts of Holiday Problems, TANABATA.

org group exhibition, Sendai Mediatheque, curated by Takashi Shinkawa, Sendai, Japan
 2001 Walk like a giraffe, SUKIMA Project 2001, CommandN, Tokyo, Japan

Commission and Awards

2004 Commendation,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Final Show
 Web Creation Award, Web Advertising Bureau
 2003 Macromedia Prize, Canon Digital Creators’ Contest
 British Council Japan Association Grant
 2003-2004 IPA Exploratory Software Project Grant 2003
 2002-2003 IPA Exploratory Software Project Grant 2002
 2001 Honorable Mention, Shinkenchiku International Residential Design Competition
 Awards of Excellence, DNC National Architecture Student Design Competition
 Diploma Design Prize,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Satoshi Hashimoto

Education

2008 Artist in Residence at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New York
 2008 Grant of Asian Cultural Council, New York
 2006 Best artist prize award Yotsuya Art Studium, Kinki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Sciences, Tokyo
 2004-2005 Studied at Yotsuya Art Studium, Kinki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Sciences, Tokyo
 2000 Completed B-semi Learning System of Contemporary Art, Yokohama, Japan

Selected Exhibitions

2008 Lives of Future Artists IV
 2008 Fruit, Times Square (Between 44th & 45th streets), New York
 FLOWER, ISCP open studios, New York
 FULCRUM, sh site, New York
 frame, 38th & 39th streets, 8th & 9th Avenues, New York
 2007 REMEMBER [group “Opening Exhibition”), play room, Ibaraki, Japan
 land escape [group “Experiment Show”), former The third

Yotsuya elementary school, Tokyo
 Keep sleep, not deep sleep, maru gallery, Tokyo
 2006 Wake up. Black. Bear., GALLERY OBJECTIVE CORRELATIVE, Tokyo
 pose LOOP d00r / do or LOSE r0SE” [group], GALLERY OBJECTIVE CORRELATIVE, Tokyo
 rock in rucksuck [group],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Tokyo
 2005 Untitled (bury), The Tamagawa riverside, Tokyo/ Kanagawa Re, GALLERY OBJECTIVE CORRELATIVE, Tokyo
 2004 Duet, GALLERY OBJECTIVE CORRELATIVE, Tokyo
 pictogramophone: POSTE RESTANTE [collaboration], BankART1929, Yokohama, Japan
 “another”, GALLERY OBJECTIVE CORRELATIVE, Tokyo

Hikaru Fujii

Education

Diploma of l’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ecoratifs ,Paris
 Diploma of DEA to the school Doctoral University Paris 8, Aesthetic, Sciences and Technology of the Arts

Solo Exhibition

2008 NIKEPOLITICS, Galaxy Countach, Tokyo
 2007 JAPAN.SDF, Yugishitsu, Tokyo

Group Exhibition

2008 The house / A Multi-Faced Mirror, Tokyo
 2007 Osaka Contemporary Art Center / The Yoshihara Jiro Memorial Art Project, Osaka, Japan
 2006 rock in rucksuck,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Tokyo, Japan
 S10, Showa Street / Dotouno, Aomori
 2005 ARCUS-artist in residence IBARAKI open studio, Ibaraki

Residency

2005 Artist in Residence at ARCUS - artist in residence IBARAKI, Ibaraki

P O I N T

발행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총괄과, 대안공간 루프
기획: 창동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대안공간 루프, 스미토모 후미히코
창동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매니저: 정재원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류희정
AIT(Arts Initiative Tokyo) 큐레이터: 스미토모 후미히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오사나이 아야코
평론: 강승원, 김미진, 서진석, 유진상, 스미토모 후미히코
디자인: 루프프레스 디자이너: 최주희
인쇄제작: 주)홍진씨앤피
발행일: 2008.08.29

연락처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www.artstudio.or.kr
서울시 도봉구 창동 601-107 Tel: +82-2-995-0995
+대안공간 루프 www.galleryloop.com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5-11 Tel: +82-2-3141-1075

Published by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lternative Space Loop

Organizations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Korea/ Alternative Space Loop
+Program Manager of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Korea : Jae won Jeong
+Alternative Space Loop Director: Jin suk Suh
+Alternative Space Loop Curator: Hee jung Ryu
+AIT Curator: Sumitomo Fumihiko
+Assistant Curator: Ayako Osanai

Critics: Seung wan Kang, Mi jin Kim, Jin suk Suh, Jin sang Yoo, Fumihiko Sumitomo

Design: LOOP Press Designer: Joohee Choi

Print: Hongjin Printing Corp.

Published Date: 2008.08.29

Contacts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Korea www.artstudio.or.kr
601-107 Dobong-gu Changdong, Seoul, Korea Tel: +82-2-995-0995
+Alternative Space Loop www.galleryloop.com
335-11 Mapo-gu Seogyo-dong, Seoul, Korea Tel: +82-2-3141-1075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may not be reproduced,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